

냉전 시대 박정희의 한국 산업화 정책과 서독의 의미와 역할 1961-1967*

노 명 환

I. 머리말	원에서 본 서독·남한 관계 의 의미
II. 박정희 시대 초기 한국사회 발전 지향점으로서의 서독 모델	V. 박정희시대 한독 관계에서 1967년 동백림사건과 그 의 미
III. 1964년 박정희의 서독 국빈 방문의 배경과 결과	VI. 맺음말
IV. 세계 냉전체제의 거시적 차	

I. 머리말

필자가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계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후원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현대한국구술사연구단의 공동연구원으로서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의 1960, 70년대 경제·외교관계에 대한 구술사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백영훈박사님¹⁾(이하 백박사)과의 구술면담 과정이 결정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역사문제연구소 주최로 2010년 10월 29-30일 개최된 “독일 통일 20주년 기념 워크숍 (주제: 분단과 통일의 상이한 관점을 넘어, 냉전과 탈냉전 시기 한국·독일의 이데올로기 논쟁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1) 백영훈은 1954년 서독으로 유학하여 뉴른베르크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그는 포그트 (Fritz Voigt) 교수의 지도를 받았는데, 포그트교수는 질서자유주의 (Ordo-Liberalismus) 경제학, 즉 사회시장경제학 (Soziale Marktwirtschaft)을 전공한 학자로서 '라인강의 기적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르하르트 (Ludwig Erhard)와 친구였다. 에르하르트가 정부 요직을 맡기 전까지 그들은 뉴른베르크 대학에서 함께 강의하였다. 1958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한 백영훈은 중앙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곧 군입대를 하게 되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독일

적인 동기가 되었다.²⁾ 백박사와 구술면담을 하면서 이 주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깊은 흥미를 갖게 되었다. 독일 현대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1960년대의 독일과 한국 사이에 이렇게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전문가로서 차출되어 5·16군사쿠데타 세력인 정래혁 상공부장관 특별보좌관으로서 활약하게 되었다. 그는 서독에서 차관을 얻는 일에 투입되었다.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백영훈은 그의 학문적 전문성과 위에서 설명한 포르트 교수와의 사제지간의 인연 그리고 그를 통한 에르하르트 경제장관 (1963년부터 수상이 된)과의 인연을 통해 크게 활약하였다. 포르트 교수 밑에서 함께 수학했던 동창생들, 예를 들어 슈미트 (Herbert Schmidt), 레벤티쉬 (Gerhard Lebentisch) 등이 또한 백영훈을 크게 도왔다. 1964년 12월에는 박정희대통령 서독 방문시 대통령 전담 통역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산업화를 위해 많은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였으며 2011년 현재 한국 산업개발연구원 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 2) 백박사님은 자신이 활동했던 시대에 대한 역사화를 위해 성실히 열정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따뜻하게 이 구술면담에 임해주셨다. 8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 독일로 함께 가서 수행하는 구술면담에까지 응해 주셨다. 이 때에 1964년 12월 서독 국민 방문 당시 박대통령 일행이 머물렀던 그리고 뤼브케 대통령과 에르하르트 수상을 위해 만찬을 베풀었던 본 (Bonn)에 소재한 쾨니히스호프 호텔 (Königshof Hotel), 박대통령이 독일 고속도로를 자세하게 관찰했던 Bonn-Köln 간 일정 지점, 재독 광부·간호사들에게 연설하며 위로했던 뉘스부르크에 소재한 함보른 광산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좀더 생생한 현장의 기억을 떠올리며 구술면담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구술자로서 당시 자신의 일을 도와주었던 친구들, 특히 슈미트 (Herbert Schmidt) 그리고 레벤티쉬 (Gerhard Lebentisch) 씨를 소개해 주었다. 이들과의 구술면담도 매우 유익했다. 본대학교 한국학과에서 강의를 통해 비판적 구술사 (critical oral history) 방법론에 의한 구술면담에도 성심껏 응해주셨다. 자신의 은사 포르트 교수 (Fritz Voigt) 탄신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그 시대를 회상해 줌으로써 비판적 구술사 (critical oral history) 차원의 확인 작업을 또다시 시도할 수 있었다. 백박사님은 당시 서독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성실·근면하게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고국에 송금함으로써 한국·독일 관계의 우호증진과 한국의 산업화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필자는 여러 당시의 광부·간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대한 필자의 종합적인 연구결과로서의 본 논문의 내용과 그 시대에 대한 평가는 백박사님이 기억하시고 그 시대를 평가하는 내용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겠다. 백박사님과의 구술면담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아 이 연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많은 측면에서 차이나는 결과를 제시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몹시 송구한 마음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는 기억과 다양한 학문적 접근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백박사님께 깊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며 앞으로 더욱 깊이 그 시대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더욱 긴밀히 소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위의 구술채록 작업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후원하고 한국의국어대학교 현대한국구술사연구단이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느끼는 한편 그 당시의 역사가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구술면담 내용들에 대해서 당시의 기록들을 찾아 그 내용들의 사실성과 또 다른 맥락 그리고 연관된 사실들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도 느꼈다. 그래서 독일 코플렌츠 (Koblenz)에 소재한 독일연방공화국 기록보존소에서 관련기록들을 찾는 작업을 수행하였다.³⁾ 백박사와의 구술면담 내용들은 기록보존소에서 관련 기록들을 찾고 이들의 의미들을 파악하고 각 기록들 사이의 관계와 맥락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훌륭한 길잡이가 되었다. 또한 역으로 기록들을 보면서 구술 내용과 비교 검토하고 당시의 사건이 당시의 경험자에 의해 어떻게 기억되고 구술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 이 측면에 대한 앞으로 연구를 심화시키면 기억과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이 시대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인사들과의 구술면담 내용들과 비교하여 구술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작업은 일면 '비판적 구술사 (critical oral history)'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의미가 컸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냉전체제 속에서 박정희 시대 초기 서독과 남한의 관계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냉전 시대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분단된 국가로 존재하던 한국과 독일 사이에 상호 교류와 협력이 특별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박정희의 산업화 정책은 서독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경제발전에서 많은 시사점과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서독은 박정희의 산업화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롤 모델이었는가?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였으며 역사적으로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면 또한 그 이유와 내용은 무엇인가? 이를 냉전체제라는 세계사의 거시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당시 박정희와 남한의 한국인들은 서독을 어떻게 보았는가? 서독 사람들은 박정희와 남한을 어떻게 보았는가? 미국과 유럽, 미국과 독일 관계 그리고 미국과 동아시아,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한국

3)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남한) 에서는 기록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이러한 주제 연구를 위해 제대로 기록을 활용할 수 없다. 독일연방공화국 (서독)의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독일의 시각에 의존하는 것이 되어서 객관성을 흐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한국과 독일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본고에서 필자는 이러한 의문들에 답하기 위해 1964년 12월에 있었던 박정희대통령의 서독 국민 방문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과정과 결과를 국제관계적, 남한과 서독의 내부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시기를 1961년에서 1967년까지로 책정한 것은 5·16을 통한 박정희의 집권과 동백림사건으로 두 국가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 때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본 주제를 연구·서술하는데 있어서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필자는 대한민국을 남한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을 서독으로 칭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왜냐하면 본 논문에서 특히 세계적 냉전체제하의 분단된 한국의 서방진영에 속하는 남한과 분단된 독일의 서방 진영에 속하는 서독 간의 연대 의식 및 상호 영향이 중요한 분석 대상이기 때문이다.

각주에서 BA는 Bundesarchiv (독일연방기록보존소), B122는 독일연방대통령실 기록그룹, B136은 독일연방수상실 기록그룹을 말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대 증인의 구술면담 기록과 당시의 문헌기록은 좋은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어 주었다.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에 해당 시대와 주제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하루 속히 국가기록의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II. 박정희 시대 초기 한국사회 발전 지향점으로서의 서독 모델

1948년 한국의 남과 북에 각각 분단국이 건국되었고 1949년에는 독일의 서와 동에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그 분단의 역사적 배경에는 큰 차이가 있었지만 일단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국가는 서로에게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1950년 한국 전쟁이 시작되면서 한국과 독일은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

게 되었고 1953년 전쟁이 끝난 뒤 남한 사회와 서독 사회는 크게 대조적인 상황을 나타내 주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남한 사회는 서독 사회를 별천지의 세상으로 바라볼 만큼 서독은 정치·경제·사회 부문에서 크게 발전하고 안정되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서독이 남한의 한국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분단을 통해 남한과 동병상련하고 있는 서독의 이러한 발전은 남한의 한국인들로 하여금 깊은 관심과 동경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서독은 이 1950년대에 이르러 소위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위에서 언급한 발전 상황을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서독은 냉전의 구조 속에서 분단되어 있는 독일 중에서 이념과 체제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에 속했다. 그리하여 서독은 남한과 같은 세계진영에 속하며 남한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우방이었다. 서독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성취는 물론 동·서독 관계 그리고 서독에서 추진되는 경제정책, 통일정책 및 외교정책 등에 대해 남한의 한국인들은 서독인들과 일면의 동질성을 느끼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우리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한의 한국인들은 또한 이러한 서독의 경제적 성취와 선진 정책들의 심층적 배경으로서 독일인의 국민성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독과 같은 발전을 구가하기 위해서 ‘독일의 국민성을 배우자’ 하는 제안은 남한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공감을 얻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었다. 이러한 제안은 어느 특정 지식인 그룹이나 정치·경제 엘리트에 국한되지 않는 범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⁴⁾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는 미국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케네디 정부는 5·16 군사쿠데타를 인정하지 않았다. 케네디는 쿠데타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모든 지금까지의 경제지원을 끊겠다고 위협하면서까지 압박하였다.⁵⁾ 당시

4) 물론 한국인들은 이미 구한말 독일인 뮐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 그리고 작곡가 에카르트(Franz Eckart) 등의 역할, 독일의 기술과 학문 등을 접하면서 독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다. 일제 시대에는 일본을 통해 독일의 학문과 제도 등을 접하고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정보를 갖게 된 정치와 행정의 엘리트 그리고 일부의 지식인들에게 국한된 것이었다.

5) 미국이 어느 정도 박정희 군부정부를 확대했는지는 미국 측의 사료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입수한 1964년 12월 박정희가

박정희는 급격한 경제건설을 통해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은 대단히 중요했다. 그는 집권과 더불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⁶⁾ 이를 위해서도 외자 도입은 절실했는데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같은 분단국인 서독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는 그가 5·16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시점부터 바로 서독으로부터 지원을 얻고자 하거나 자신의 집권플랜과 관련하여 서독에 특별히 깊은 관심을 갖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가 서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1년 11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케네디로부터 냉대를 받고 12월에 서독으로부터 차관을 받기 위한 협상이 성공한⁷⁾ 때부터인 것으로 보인다.⁸⁾ 이때부터 박정희

서독을 방문하기 전에 주한 서독대사 뵐거 (Karl Büniger)가 작성하여 연방대통령실에 보낸 박정희에 대한 평가에서 보면 박정희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는 시점부터 1963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는 시기 까지 미국으로부터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어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Staatsbesuch Korea. Botschafter Büniger hat folgende Charakteristik von Staatspräsident Park Chung Hee vorgelegt, BA, B122/5485

- 6) 이 경제개발 계획은 이미 이승만 정권 때에 성안되었고 장면 정권 때에도 이를 변형하여 추진했다. 박정희 정부도 이를 바탕으로 다시 성안하고 추진하였다. 이완범, 『박정희와 한강의 기적. 1차 5개년 계획과 무역입국』,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6), 39-59쪽. 서독과의 관계를 깊이 하려는 노력도 이미 자유당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 최종고, 『한강에서 라인강까지: 한독관계사』, 서울 (유로출판사) 2005, 243-245쪽.
- 7) 이 협상을 통해 서독과 남한은 경제 및 기술 협조에 관한 의정서에 조인하였고 서독은 남한에 1억 5천만 마르크의 장기 재정차관과 (75 Mil. DM) 상업차관 (독일기업의 한국투자)에 대한 보증금 75 Mil. DM) 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Die deutsche Entwicklungshilfe für Korea, BA, B122/5485; 최종고, 『한강에서 라인강까지: 한독관계사』, 서울 (유로출판사) 2005, 245쪽. 백영훈은 위의 차관 중 상업차관 75 Mil. DM을 받기 위해 지급보증에 필요했는데 광부·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해결했다고 구술 증언하고 자신의 책에서도 밝히고 있다. 백영훈, 『아우토반에 뿌린 눈물』, 33-34쪽. 그런데 상업차관 75 Mil. DM은 독일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기계 설비 대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독일 정부가 지급보증을 한다는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지급보증이 필요 없는 상업 차관이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재독한인글뤽아우친회 편, 『파독 광부 45년사 1963-2008』, 3312-314쪽. 당시 백영훈을 도왔던 그의 친구 Herbert Schmidt 씨도 구술면담을 통해서 지급보증이 필요 없었음을 말한다. 필자의 추측으로 당시에 다른 맥락에서 주고받던 내용이 백영훈박사에게 각인되어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
- 8) 이에 대해서는 백박사와의 구술면담; 최종고, 『한강에서 라인강까지: 한독관계사』, 서울 (유로출판사) 2005, 245-246쪽.

는 서독의 발전상과 분단국으로서의 상황 그리고 독일의 전통적인 국민성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서독에 대한 관심은 1962년에 그의 이름으로 출간된 『국가와 혁명과 나』⁹⁾에서 서독이 한 장 (Chapter) 「라인강의 기적과 불사조의 독일 민족」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¹⁰⁾

그는 여기에서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 그리고 그 배경으로서 독일 국민성을 지적하고 그 국민성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2년의 화폐개혁은 1948년 서독지역의 화폐개혁을 모델로 하였다.¹¹⁾ 박정희는 위의 저서에서 독일 국민이 근면 검소하고 지축을 생활화 하며 공공질서를 존중하고 직업소명관에 철저한 국민임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참았고, 입을 것을 아꼈으며, 쓸 것을 모아 살았다. 내뺌하고, 절약하고 지축하는 개인생활에 철저한 것이었다. 또한 독일 민족처럼 질서를 존중하고 복종하며, 직업을 신성시 하는 국민도 없을 것이다....”¹²⁾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분야의 전문가나 숙련공으로 만들었던 것이다.”¹³⁾

9) 이 저서는 1963년 영어로 번역되었다. 독일에 관한 부분은 5장 “라인강의 기적과 불사조의 독일민족” 211-226 페이지에 걸친 내용인데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과 상호 토론을 통해 백박사가 집필했다고 한다. (백박사와의 구술면담). 1964년 5월 방한한 서독 하원의장 게르스텐마이어 (Eugen Gerstenmeier) 박사에게 박정희는 이 책의 5장 “라인강의 기적과 불사조의 독일민족”의 영문 본을 전했다. 그는 이를 독일어로 번역하게 하여 (Das Wunder am Rhein und das deutsche Volk) 박정희의 독일관을 서독 내에서 널리 알렸다. 그는 이 번역본을 에르하르트 수상에게도 1964년 7월 16일 보냈다. BA, B136/ 6264. 에르하르트 수상은 이를 읽고 나서 ‘매우 흥미롭게 즐겁게 읽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 약간은 회의적이다’ 는 (mit großem Interesse, ein wenig Skepsis, aber auch mit Freude gelesen.) 평가 함께 고맙다는 답장을 7월 31일 게르스텐마이어 하원의장에게 보냈다. BA, B136/ 6264. 박대통령이 이를 서독에 보낸 것은 자신의 독일관을 알리고 서독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0) 물론 이 책은 자신 스스로 집필한 것이 아니고 참모들과 자문 학자들의 도움으로 집필되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으로 출간되었고 이 책이 집필되는 동안 참모들 및 자문학자들과 적극적인 토론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그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다.

11) 유원식, 『유원식 회고록』, 127-128쪽.

12)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217-218쪽.

“이러한 국가관이나 사회의 윤리, 또는 그러한 철학은 벌써부터 유전되어 오는 게르만 민족의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으로 명석한 ‘분별 있는 민족성’이다.”¹⁴⁾

그는 서독 아테나워와 에르하르트의 경제성장과 연계한 승공정책이 자신의 정책구상과 합치함을 확인했다. 그는 분단된 한국 리더십을 위한 모델로서 서독의 아테나워와 에르하르트의 ‘승공통일’ 정책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그의 저작에서 박정희는 경제발전을 통해 공산주의를 이기는 소위 ‘승공정책’, 즉 ‘선 건설 후 통일’ 정책을 독일의 예를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아테나워 수상이나, 그의 각료들은 전후 세계가 점차 공산주의에 기울어 가자, 실속 없는 반공의 구호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경제안정을 강구하였다. 이들은 실로 방공이란 표어를 실리적인 조국 재건에 천재적인 수완으로 발휘하였다. 그같은 전후의 난국에서도 독일에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다.”¹⁵⁾

박정희는 아테나워의 반공 외교정책을 모델로 ‘할슈타인(Hallstein)원칙’을 강력히 적용했다.¹⁶⁾

“허술한 반공의 기치나 구호는 이미 한물갔다. 승공의 첩경은 ‘피와 땀과 눈물’로만 자라는 ‘경제의 재건’, 이 하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래 전에 이미 아테나워가 제시한 산 증거가 아닌가.”¹⁷⁾

그는 아테나워의 서독을 위한 리더십을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13) 위의 책, 219쪽.

14) 위의 책, 218쪽.

15) 위의 책, 220쪽.

16) ‘할슈타인 원칙’이란 1954년 서독이 소련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때 당시 외무부 차관 할슈타인(Walter Hallstein)이 소련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동독을 인정하고 동독과 외교관계를 맺는 경우 서독은 그 나라와 외교관계를 갖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면서 비롯된 외교원칙이다. 남한에서는 이를 북한과 관련해서 유추적으로 적용하였으며 ‘할슈타인 원칙’으로 불렸다.

17)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233쪽.

이 평가했다:

“... 막대한 미국의 원조를 받아 경제부흥을 이룩한 아테나워 앞에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왔다. 이것이 곧 한국의 동란이다. 우리는 이래저래 남 좋은 일에 이용만 되었다. 아테나워는 이 동방의 비극을 자기들의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데 최대한으로 이용하였다.”¹⁸⁾

이렇게 서독에 대한 관심을 깊게 가지면서부터 박정희는 서독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심화시키고자 하였고 여러 측면에서 서독을 모델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던 산업화와 한국의 ‘국민성 개조 정책’이 서독을 모델로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화 정책들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서독의 성공 사례에 대한 언급과 가시적인 소개는 앞에서 설명한 논리에 따라 남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이고 강력한 참여와 지지의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박정희는 쿠데타 당시 빈곤의 극복, 경제건설, 이에 기반한 승공통일의 목표를 통해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 하고 분단국의 국가 지도자로서 역사를 새롭게 이루고자 하였는데, 경제건설에 기반한 승공통일의 목표가 서독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감탄해 마지않으며 자신의 계획을 위해 서독을 모델로 설정하였던 것 같다. 또한 동시에 서독의 지원을 극대화하여 이를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는데 활용하고자 한 것 같다. 그런데 그의 계획들은 서독을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을 더욱 실감나게 설득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¹⁹⁾ 박정희의 군인으로서의 경력이 많은 부분 일본과 연결되어 있

18) 위의 책, 221쪽.

19) 1964년 12월 박정희가 서독을 방문하기 전에 주한 서독 대사 뵐거 (Karl Büniger)가 본국 대통령실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박정희는 일본의 근대화 역사와 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일본점령 정책을 그의 정치와 경제정책을 위한 거울로 삼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박정희가 여기에도 또한 독일의 국민성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후 서독의 발전상을 모델로 추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Staatsbesuch Korea. Botschafter Büniger hat folgende Charakteristik von Staatspräsident Park Chung Hee vorgelegt, BA, B122/5485. 필자의 추측에 따르면 박정희가 여러 측면에서 일본의 사례들을 모델로 설정하고 추진하였지만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고 또한 서독으로부터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서독 모델을 강조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대기업 육성정책 등이 그렇게 생각된다. 이 관점을 앞으로 심화된 연구들을 통

는 점을 고려할 때 그는 많은 부문에서 일본을 모델로 정책을 구상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일본을 모델로 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일본의 것을 담으면서 서독의 것을 모델로 하고 있음을 강조할 수도 있었겠다. 어하튼 그는 독일 모델 실현이라는 명분을 통해 자신의 쿠데타를 그만큼 더욱 효율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들은 1964년 그의 방독 과정과 그 결과에서 구체적으로 감지된다.

III. 1964년 박정희의 서독 국민 방문의 배경과 결과

1. 서독의 초청 목적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건국과 함께 수상으로 선출된 아테나워(Konrad Adenauer)는 서독의 경제건설과 서방세계의 단결, 특히 서유럽 통합 정책을 통한 공산주의 극복을 그의 가장 중요한 정치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했다. 이러한 그의 정책은 ‘힘의 우위를 통한 정책(Politik der Stärke)’으로 불렸다.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를 통한 집권도 그는 즉시 승인하였는데²⁰⁾ 서방세계의 단결을 통한 공산주의 극복, 즉 그의 승공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아테나워의 정책과 태도는 박정희의 정책 구상과 일치하고 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그의 저서에서 볼 수 있듯 박정희는 아테나워와 그의 정책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하나의 모델로 설정하고 있다. 1963년 아테나워는 수상 직을 사임함으로써 14년간의 재임 기간을 끝내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의 뒤를 이어 그 밑에서 경제부 장관을 하던 에

해 확인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20) 아테나워 수상이 장도영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보낸 1961년 6월 23일자 편지, BA, B136/6264. 장의장은 5월 24일 아테나워 수상에게 ‘혁명’의 정당성을 알리는 편지에서 ‘혁명의 명분과 목표로서 반공, 유엔헌장 준수, 부정부패와 사회부조리 일소, 기아선상에 있는 민생문제 해결,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힘의 배양’을 명시했다. 그는 이 편지에서 ‘모든 목적이 다 성취되었을 때 혁명세력은 다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도 힘주어 부기하였다. BA, B136/6264.

르하르트 (Ludwig Erhard)가 수상 직에 올랐다. 그는 경제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소위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경제지도자로 추앙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질서자유주의 (Ordo-Liberalismus)’에 기초한 ‘사회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 이론을 현실 경제 정책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의거한 시장제도와 국가의 정책에 의거한 사회보장제도를 결합하는 그러한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여기에서 또한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정책은 사회시장 경제의 중요한 기본 내용이었다. 수상 직에 취임하면서 그는 아테나워 정책의 근간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아테나워의 승공정책인 ‘힘의 우위를 통한 정책 (Politik der Stärke)’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그런데 외교정책에서 아테나워가 프랑스와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서유럽통합정책에 몰입했던 반면에 에르하르트는 미국과의 관계를 아테나워보다 훨씬 중시했고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방세계를 다자간 자유무역 지대로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에르하르트는 공산권에 대항한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의 세계적 역할의 가치에 대해서 아테나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람들은 아테나워를 ‘드골주의자’ 에르하르트를 ‘대서양주의자’라 불렀다. 물론 우리는 서독이 출범되는 초기에 프랑스와의 화해와 협력은 서독으로서 너무나 선결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외교정책에서 아테나워 시기와 그의 뒤를 이어받은 에르하르트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여하튼 에르하르트는 아테나워보다 미국의 세계정책에 훨씬 더 협조적이었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상실된 시장으로서의 동독지역과 동유럽 지역에 대한 대체 시장을 찾는데 있어서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이 대체시장의 좋은 후보 지역 중의 하나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이었다.²¹⁾

21) 서독은 그들의 전통적인 동유럽 시장이 상실된 가운데 대안으로서 서방 세계 내에서 판매시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 당시 그들이 보기에 남한은 가난하고 작은 국가이나 안보상의 이유로 일본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남한에 경제지원을 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경험 그리고 한국전쟁의 경험에 의거하여 반공의 안보를 위해 경제재건을 관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 세력인 박정희 정권이 추진력 있게 산업화를 해내면 장래 의미 있는 시장이 이곳에서 형성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로 확장해가는 데 필요한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독은 소위 ‘라인강의 기적’에 힘입어 경제가 급속도로 확장·발전되면서 노동력 부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 서독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인 광산 근로자와 병원 간호사 부족문제가 심각했다. 그런데 종교 기관들의 주선을 통해 서독에 들어오는 남한 출신의 간호원들이 대단히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 1962년 국가 간 계약을 체결하여 입국하는 광부들도 뛰어난 역량을 보였다. 당시에 한국 사회의 낮은 고용 능력으로 대학졸업자들이 광부로 간호원으로 서독으로의 파견 대열에 섰다. 그 결과 각 개인 자질의 우수성이 더욱 돋보일 수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함으로써 이러한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심심한 사의와 격려를 표시해주고자 하였다. 그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뒤 경제부 장관으로서 한국에 대한 차관대여 협상에 참여했었다. 이를 통해 그는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58년 그는 경제부장관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었다. 그는 남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공산주의를 이기고 이 지역의 안보체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는 분단국의 대통령을 초청하여 독일 분단의 문제 특히 베를린 문제를 세계적으로 부각시키는 뜻도 가졌다.²²⁾ 동북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정책적 희망은 그가 1964년 12월 박정희를 서독으로 초청하는 중요한 동기들로 작용하였다. 물론 초청의 당사자는 하인리히 뢰브케 (Heinrich Lübke) 대통령이였다. 그런데 서독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이고 수상이 실권자라는 측면에서 실질적 초청자는 에르하르트 수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서독 정부는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군부 쿠데타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남한 사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일관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반공을 성공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특히 주한 서독 대사 뵐거 (Karl Büniger)가 보내는 보고서들에 의거하여 박정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박정희는 진정성이 있는 인물이며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²³⁾ 그는 박정희를 검소하고 소박하며 선동가적인 기질과

유원식, 『유원식 회고록』, 126쪽.

22) 서독 연방대통령실의 박대통령 방문 준비에 대한 보고서, BA, B122/5485.

23) Staatsbesuch Korea. Botschafter Büniger hat folgende Charakteristik von Staatspräsident Park Chung Hee vorgelegt, BA, B122/5485.

는 전혀 거리가 먼 실천적 인물로 묘사하고 국민들이 이에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서독 대통령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어졌고 박정희 후보가 15만 표의 근소한 차이로 신승을 했으며 12월에 대통령에 취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⁴⁾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는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등 위험한 강경파로 그리고 부패한 정부로 평가하고 있다. 장면 정권은 민주적인 정부이나 매우 취약하고 특히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와의 갈등이 큰 문제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박정희는 경제건설을 통한 반공, 즉 ‘선 건설 후 통일’을 추구하고 부패와 싸울 강한 의지를 보인다고 평하고 있다.²⁵⁾ 이 보고서는 박정희 정권 출범 후 경제지표가 뚜렷이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63년 그리고 1964년에 남한의 수출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전체 수출에서 산업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1년 15%에서 1963년 45%로 늘었다는 것이다.²⁶⁾ 이 보고서는 또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화해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해 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²⁷⁾ 그런데 학생들을 비롯한 비판세력들의 강렬한 반대로 회담진행이 결렬되고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박정희 정권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이러한 박정희 정권을 서방세계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²⁸⁾ 1964년 12월 9일 박정희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간 회담에서 에르하르트 수상은 박대통령에게 학생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²⁹⁾ 이는 서독 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진행으로 반대

24) 서독은 냉전시대의 안보동맹에 대한 필요성에서 박정희의 쿠데타를 인정하고 지원한 것인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그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25) Innenpolitik, BA, B122/5485.

26)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Koreas, BA, B122/5485.

27) Außenpolitik, BA, B122/5485.

28) 이 보고서는 군부통치가 시작되면서 자행되는 사회의 억압적인 측면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측면은 뒤에서 설명하듯 동백림사건이 터지면서 크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29) Aufzeichnung. Der Herr Bundeskanzler empfing am 9. Dezember 1964 um 12.15 Uhr den Staatspräsidenten von Korea, Herrn Park, zu einem Gespräch in größerem Kreise, BA, B136/51028.

세력의 엄청난 시위에 직면하여 어려움에 빠져있는 박정희 정권을 격려하고 반대세력을 무력화시켜 한일회담을 진척시키게 하기 위해 박정희를 초청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뤼브케 대통령도 12월 8일 박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본과 화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대변했다. 그리하여 한국경제가 발전하는데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미래 지향적으로 일본과 화해해야 한다는 내용이 양 정상 간의 회담의 거의 주된 화제였다.³⁰⁾

서독 정부의 목적은 정상화된 한일관계를 기초로 동북아시아조약기구(North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NEATO)를 구성하게 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³¹⁾ 에르하르트 박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승공을 위한 자유세계의 결속과 동북아 지역의 방위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에르하르트는 유럽에서 NATO 때문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화해하여 지역공동체를 함께 이끌어 가고 프랑스와 독일의 적대 관계의 상징이었던 알자스-로렌 문제가 더 이상은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그가 NEATO에 대한 그리고 일본과 화해에 대한 충고를 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화약고가 터지면 유럽에서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³²⁾ 그는 일본과 화해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한국의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대통령은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미래를 보아야 하며 한·일 회담을 꼭 성사시킬 것임을 피력했다. 미국과 일본과 함께 NEATO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을 또한 언급했다. 이 회담에서 박대통령도 서유럽이 NATO와 EEC를 통해 결속되어 안전하다고 화답했다.³³⁾

그러면 왜 이 때 NEATO 결성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박대통령에게 권

30) Aufzeichnung. Der Herr Bundespräsident empfing am 8. Dezember 1964 um 10.45 Uhr den Präsidenten der Republik Korea, BA, B122/5485.

31) BA, B122/5485.

32) Aufzeichnung. Der Herr Bundeskanzler empfing am 9. Dezember 1964 um 12.15 Uhr den Staatspräsidenten von Korea, Herrn Park, zu einem Gespräch in größerem Kreise, BA, B136/51028.

33) Aufzeichnung. Der Herr Bundeskanzler empfing am 9. Dezember 1964 um 12.15 Uhr den Staatspräsidenten von Korea, Herrn Park, zu einem Gespräch in größerem Kreise, BA, B136/51028.

유되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필자는 1964년 10월과 12월 사이 에르하르트 수상과 주 서독 미국대사 맥기(McGhee)의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³⁴⁾ 이들의 대화에 따르면 1964년에 중국이 성공적으로 핵실험을 하였고 그 군사적 효용은 크지 않지만 여러 국가들이 중국에 기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 소련에서 동서공존을 주장하던 후르시초프가 물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자유세계 국가들의 다국적군(MLF) 구축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들은 전 자유세계의 단결과 지역별 동맹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들을 협의하였다. 이 지역동맹체를 결성함에 있어서 그 지역 내의 이웃 국가 간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했다. 동북아에서는 NEATO가 결성되어야 하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했다. 이 시기의 다른 기록들을 통해 에르하르트가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모로코와 알제리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⁵⁾

박대통령의 서독 방문 직전 연방 대통령실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NEATO는 본래 이승만정권이 동북아 지역 방위공동체 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미국의 딜레스 국무장관이 이에 화답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딜레스 장관은 남한, 미국, 대만, 필리핀 그리고 일본을 묶어 NEATO를 조직하려 했는데 일본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중국(중공)과 북한에 대한 관계를 고려하는데 기인한다는 점을 이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박정희 정권이 출현하면서 대만과 필리핀과 함께 NEATO를 구성할 생각을 하나 이는 너무나 약한 방위공동체로서 현실적인 의미를 갖지 못함을 협의 당사자들이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정희는 일본과 화해하여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하나 일본은 경제관계 설정만을 추구하

34) Aufzeichnung. Der Herr Bundeskanzler empfing am 23. Oktober 1964 um 12·30 Uhr den amerikanischen Botschafter, Herrn McGhee, zu einem Gespräch, bei dem auch Bundesminister Westrick und Ministerialdirigent Osterheld anwesend waren, BA, B136/51028; Aufzeichnung. Der Herr Bundeskanzler empfing am 11. Dezember 1964 um 11.00 Uhr den Botschafter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zu einem Gespräch, BA, B136/51028.

35) Aufzeichnung. Der Herr Bundeskanzler empfing am 27. Oktober 1964 um 10.15 Uhr den pakistanischen Botschafter zu dessen Antrittsbesuch, BA, B136/51028.

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감당해 오고 있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일본이 떠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중국(중공)이 일본의 위협세력으로 성장한다면 그 때 일본은 남한과 정치적 관계를 맺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내다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 시점이 남한과 일본이 함께 NEATO를 결성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여는 때라고 본다.³⁶⁾ 지금까지 서술한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서독은 1964년 중국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일본이 NEATO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박대통령의 서독 방문은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듯 이미 박정희가 일본과의 화해를 통한 동북아시아 방위공동체를 결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1962년 그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국간은 이렇게 강(江)을 두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자유 태평양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도, 아시아 10억의 유색 인종의 명목을 위한 공동 관심으로서도, 피차에 등을 지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우리의 경우는 그렇다. 유럽 공동시장(共同市場:EEC)을 통한 자유통일의 통합운동, 중근동(中近東)의 카사블랑카 현장하의 아프리카 단결, 아랍세계의 통합운동, 그리고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의 탄생 등, 이러한 세계의 조직 개혁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대로 고립이나 대립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흔히, 한·일 양국 관계가 흡사 지난날의 독·불을 닮았다 하는 이가 있으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성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³⁷⁾

에르하르트 수상은 박대통령에게 회담에서 두 국가 간의 진정한 화해는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틀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³⁸⁾ 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공동체 형성을 통해 서독과 프랑스가 진정한 화해의 역사를 이룬 경험에 기초한 충고라고 이해되어 필자에게 매우 흥미로운 측면이다. 이렇게 NEATO 결성에 에르하르트가 깊은

36) Außenpolitik, BA, B122/5485.

37)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236쪽.

38) Außenpolitik, BA, B122/5485.

관심을 보이고 박대통령을 초청하여 회담을 한 것은 자신의 신념에서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협력의 차원에서 에르하르트가 이와 같은 외교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 대신에 서독이 남한에 원조를 실행하면서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그가 대서양주의자임을 확인해 주는 측면이기도 하다. 물론 반공을 위해 최대의 수단은 경제건설이므로 한·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일본의 지원을 받아 남한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었다.³⁹⁾ 에르하르트는 한국(남한)의 경제건설을 위해 우선적으로 서독이 지원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까운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하여 경제지원을 받고 상호 협력할 것을 충고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서독은 또한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할 남한에 대한 지원의 부담을 면할 수 있을 것이었다. 서독은 특히 당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에게도 한국을 지원하도록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박정희는 그의 서독 방문을 마치고 외무장관 이동원을 영국과 프랑스에 파견하였고 이들 나라와 경제협력을 모색하게 했다.⁴⁰⁾ 이는 박정희로 하여금 지역통합체로서의 유럽공동체의 존재와 서독을 통한 접근 경로를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본(Bonn)에서 회담을 마치고 동서 분단의 상징인 서베를린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힘의 우위를 통한 정책에 기초하지만 동·서독 간에 접촉을 통한 변화를 꿈꾸는 빌리 브란트가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이후 서독 수상이 되어 소위 ‘동방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인물이었다. 박대통령과 만남에서 그는 접촉을 통한 변화에 대한 그의 소신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은 두 사람 사이에 상호 소통되지 않았다. 당시 통역을 맡았던 백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39) 이러한 관점에서 박정희의 서독 방문은 한·일국교정상화 회담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그 이듬해인 1965년에 성사시키는데 일정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일은 당시 비관세력들의 엄청난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었다. 두 사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영향을 준 것만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40) Jong-soo Han, *Die Beziehungen zwischen der Republik Korea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48-1986*, Peter Lang Furankfurt am Main (1991), p.126.

“브란트 시장, 독일도 우리처럼 강대국에 의해 갈라져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통일할 계획이요?”

“각하, 우린 통일정책도 없지만 꼭 통일하려는 생각도 갖지 않습니다. 이대로도 좋습니다. 단, 서로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대신 문화·경제 교류나 이뤄졌음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이러한 브란트의 언급에 깜짝 놀란 박대통령이 백박사에게 물었다고 한다.

“이 사람들 정말 통일 의지가 없는 것 아니오. 아니면 정치적 제스처 같소?”⁴¹⁾

이 일화는 박대통령과 당시 ‘동방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브란트 시장과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2. 박정희의 서독 방문목적과 결과

1964년 12월 6일 박정희는 김포공항의 출국 보고에서 서독을 직접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한다고 하였다.⁴²⁾ 실제로 그는 1964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서독을 국빈 방문하는 동안 독일의 역사와 서독의 상황으로부터 한국에서의 정책을 위한 많은 시사점들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서독에게 남한의 경제발전과 승공통일 그리고 서방세계의 단결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직접 설명하고 서독으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고자 하였다. 당시 서독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박정희는 서독 방문을 통해 쿠데타로 집권한 자신의 정부가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야당을 비롯한 비판적인 지식인층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였다.⁴³⁾ 서독으로 파견된 광부 간호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정부차원에서 위로·고무하고 해외진출을 통한 국가발전을 격려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⁴⁴⁾ 서독체류 동안 박정희는 두이스부르크(Duisburg)에 위치한 함보른 광산회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한국인 광부

41) 백영훈, 『한강에 흐르는 라인강의 기적』, 76-77쪽.

42) 동아출판사 편, 『봉정7만리, 박정희대통령방독기』, 1965, 42-43쪽.

43) BA, B122/5485.

44) 백영훈 구술면담.

와 간호사들을 위해 연설하고 감격스러운 해후의 장면을 연출했다.⁴⁵⁾ 베를린의 분단 현장을 방문하여 양국의 공통점을 알리고 반공의 연대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들을 가진 박정희는 서독 방문 동안 무엇보다도 독일의 고속도로를 시찰하고⁴⁶⁾ 이를 참고로 한국에서 고속도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였다.⁴⁷⁾ 당시 서독의 고속도로 상황과 개개의 고속도로 구조에 대해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이론적으로도 대단히 면밀히 연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속도로를 굴러가게 할 자동차들을 생산하기 위한 한국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독일의 자동차 산업 그리고 이를 위한 제철산업에 대해서도 현장답사를 비롯하여 여러 조사를 수행하였다.⁴⁸⁾ 한국에서의 대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국가의 근간 사업들을 대행하고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마그 (Demag), 시멘스 (Siemens), 아에게 (AEG) 등의 서독 대기업을 방문하고 운영 실태 그리고 그 업적과 성취도를 조사하였다.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에르하르트의 충고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었다고 백박사는 전한다. 이 방문시기 에르하르트 수상과의 회담 내용을 보면 사회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중소기업(Mittelstand)의 육성 필요성을 에르하르트가 강조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에르하르트는 경제성장을 중소기업 육성 정책부터 시작하여 국민들에게 노동과 그 보답에 대한 자금을 통해서서히 대기업을 발전시켜 가라는 충고도 하는데 이러한 발전이 공산주의를 극복하는데 중요하다 민생복지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에르하르트는 경제건설과 복지사회 건설을 통한 승공통일의 가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박대통령에게도 조언을 하였다. 그는 무력을 통한 통일시도의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백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45) 동아출판사 편, 『봉정7만리, 박정희대통령방독기』, 1965, 96-104 쪽; 백영훈, 『아우토반에 뿌린 눈물』, 서울 (연암프레스) 1997, 34-37쪽.

46) 백영훈, 『아우토반에 뿌린 눈물』, 서울 (연암프레스) 1997, 70-71쪽.

47) 1968년 12월 21일 서울-인천, 서울-수원 고속도로가 동시에 개통되었다.

48) 백박사에 따르면 12월 9일 회담에서 에르하르트 수상이 자신의 1958년 한국방문 기억을 떠올리면서 산이 많은 한국에서 반드시 고속도로를 만들고 자동차산업을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제철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두 사람간의 회담에 대한 독일 측 회의록에서는 에르하르트 수상이 1958년 방문을 떠올리며 대화하였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전한다:

“통일엔 지름길이 따로 없습니다. 경제를 일으켜 민생문제를 해결해 주고 복지사회를 만들어 국민이 민주체제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비로소 반공도 가능하고 통일도 다가오게 됩니다. 힘에 의한 통일은 분명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⁴⁹⁾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르하르트와 충고는 1964년 12월 9일의 박정희와 에르하르트 간의 회담 내용에 대한 서독 측의 요약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⁵⁰⁾

경제건설에 의한 승공통일에 대해서는 박대통령 스스로도 서독 방문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한국이 무력통일을 지양하고 경제개발을 통해 국력배양을 도모함으로써 승공통일에 노력하고 있다.”⁵¹⁾

이와 동시에 분단국으로서의 동질감에 호소하면서 박정희는 서독과 한국이 교류·협력을 강화하는데 그리고 서독의 지원을 받는데 큰 성과를 이루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에르하르트 수상이 배운 1964년 12월 9일 오찬회동에서 박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경제지원을 요청하였다:

“과거나 현재에도, 독일과 한국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라는 타락을 가로막고 있는 제방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서방세계는, 적어도 이 두 개의 제방이 허물어 질 경우를 가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방의 일각만이 견고하다고 해서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⁵²⁾

49) 백영훈, 『한강에 흐르는 라인강의 기적』, 75 쪽; 백영훈, 『아우토반에 뿌린 눈물』, 서울 (연암프레스) 1997, 40쪽. 1964년 12월 9일 박정희와 에르하르트 간의 회담에 대한 서독 측 요약문을 볼 때 백영훈 박사의 이러한 상기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Aufzeichnung. Der Herr Bundeskanzler empfing am 9. Dezember 1964 um 12.15 Uhr Staatspräsidenten von Korea, Herrn Park, zu einem Gespräch in größerem Kreise, BA, B136/ 51028.

50) Ibid..

51) 동아출판사 편, 『봉정7만리, 박정희대통령방독기』, 1965, 86쪽.

이에 대해 에르하르트 수상은 박대통령에게 향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화답했다.:

“우리는 모든 곳에 개발 원조를 한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와 같은 정신과 정치적·윤리적 신념을 가진 국민에게 기꺼이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원조를 하고 싶다. 서독과 남한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확신한다. 당신의 국가재건을 위해 서독이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 논의가 만족스럽게 진행되어 기쁘다.”⁵³⁾

이러한 공동 인식들의 상호 교환은 당시 양 국가 간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남한)이 독일연방공화국 (서독)을 모델로 설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박대통령은 뉘른베르크 대통령에게 행한 연설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항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한국 국민은 국가가 강해져야 하고, 특히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최우선의 중점을 두고 있다.”⁵⁴⁾

박대통령과 뉘른베르크대통령의 공동성명⁵⁵⁾에서 양측은 경제발전이 분단된 두 국가의 통일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무기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한의 경제성장은 두 국가 공동의 관심사임을 천명했다.⁵⁶⁾ 이렇게 볼 때 서독과 남한은 분단 상황이라는 공통점과 경제발전을 통해 공산주의 극복과 승공통일, 선 건설 후 통일이라는 대의아래 상호협력과 지원을 꾀했다고 할 수 있다.⁵⁷⁾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박대통령의 서독 방문

52) 동아출판사 편, 『봉정7만리, 박정희대통령방독기』, 1965, 89쪽.

53) Bulletin der Bundesregierung, 11. Dezember 1964, p.1682.

54) Bulletin der Bundesregierung, 11. Dezember 1964, p.1674.

55) Betr.: Staatsbesuch des Präsidenten von Korea. Zum Abschluß des Staatsbesuchs vom Präsident Park Chung He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urde das folgende gemeinsame Communiqué veröffentlicht, BA, B122/5485.

56) Bulletin der Bundesregierung, 11. Dezember 1964, p.1693.

의 핵심적 동기와 의의는 반공을 매개로 한 서방세계의 유대와 단결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 수단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 경제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었다.

서독 방문 후 박정희는 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남한의 산업화정책, 경제성장에 기반한 승공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서독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귀국 보고문에서 박정희는 전후 서독 부흥의 원동력으로서 독일 국민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고 이는 앞에서 소개한 1962년 저서에서 피력한 관점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독일의 부흥상은 과연 기적이라 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국민들은 「기적」이란 말을 쓰기를 싫어하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후 독일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노력의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들이 본 바에도 이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의 오늘날의 부흥과 번영은 지난 20년 동안 그들의 근면, 그들의 검소, 그들의 인내심, 그들의 단결력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⁵⁷⁾

“독일 국민들은 또한 질서와 규율을 존중하는 좋은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국민성은 준법정신이라든가 사회공중도덕면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거니와 일상생활면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⁵⁸⁾

“독일의 국민성은 … 단결심이 강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들은 또한 이론적이고 사색적이며 철학적이라고도 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다.”⁶⁰⁾

그는 이렇듯 서독의 기적 같은 발전의 원동력에 대한 현지답사와 연구를 통해 얻은 교훈과 시사점을 한국에서 제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구술면담을 통해 백박사는 한국 새마을 운동의 도화선이 박대통령의 서독방문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방문 당시 박대통령은 서독의 농촌이 잘 사는 것에 큰 인상을 받았고 이의 원인에 대해서 그에게 물

57) 동아출판사 편, 『붕정7만리, 박정희대통령방독기』, 1965, 130-131쪽.

58) 동아출판사 편, 『붕정7만리, 박정희대통령방독기』, 1965, p.7.

59) 위의 책 15쪽.

60) 위의 책 13쪽.

었다.⁶¹⁾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그는 평소 가지고 있던 지식과 현지에서 더욱 연구를 하여 파악한 독일의 히틀러시기에 전개되었던 새마을운동 (Neue Gemeinschaftsbewegung)에 대해 박대통령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한다. 박대통령은 이와 같은 새마을운동을 한국에서 꼭 실현해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보였다고 그는 증언한다. 앞으로 이를 확인해 보는 작업은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되리라 생각한다.⁶²⁾ 그런데 백박사의 이러한 구술내용은 박대통령의 김포공항 도착성명과 일백상동함이 있어 특별히 큰 흥미를 끈다.

“우리도 빨리 독일의 국가건설의 교훈을 본받아 실천에 옮기고 모든 종래의 수위체제를 개혁하여 국제협력에 의한 경제건설을 더욱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국회의 협조를 얻어 국제협력에 치중한 행정개혁을 단행할 것이며, 한편 국민 각자의 각성과 자기개혁을 강조할 것입니다.”⁶³⁾

백박사는 여기에서 ‘국민 각자의 각성과 자기 개혁’은 앞으로 전개할 새마을 운동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증언한다. 귀국 후 방문기에 쓴 다음과 같은 박대통령의 언급은 백박사의 구술 내용을 일정 부분 뒷받침해 준다. 박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독일의 농촌은 중소기업과 농촌과를 유기적으로 연결을 맺게 하여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하겠다. 농촌과 공업이 상호의존해서 병행하여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방할 좋은 점이라고 하겠다. 독일농촌의 어디를 가나 삼림이 울창하고 그들 국민들이 나무를 애호하는 정신을 엿볼

61) 이는 앞으로 철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항이다.

62) 그런데 필자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독일의 ‘새마을운동 (Neue Gemeinschaftsbewegung)’을 모델로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 또는 독일의 역사에서 ‘새마을운동 (Neue Gemeinschaftsbewegung)’이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박사가 이를 박대통령에게 설명했고 박대통령이 그 설명을 수용했고 그래서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시행되었다는 백박사의 진술이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국현대사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63) 동아출판사 편, 『붕정7만리, 박정희대통령방독기』, 1965, 133쪽.

수 있는 것은 가장 부럽게 느낀 점의 하나가 아닐 수 없었다.”⁶⁴⁾

위의 인용문은 서독을 모델로 새마을운동의 농촌 생산력 증대사업과 산림녹화 사업을 구상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4월 5일을 식목일로 제정한 것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치밀한 확인 작업과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백박사는 박대통령이 강조한 삼정주의(三正主義), 즉 정직, 정확, 정밀의 가치 표어는 독일 국민성과의 연계 속에서 정립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국민의 행동강령으로 ‘경제 지상’, ‘건설 우선’, ‘노동 지고’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서독의 가치지향을 모방한 것이라고 말한다.⁶⁵⁾ 그는 박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의 슬로건인 근면, 자조, 협동의 “한국전통적인 가치”를 통해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국민총화’를 달성하려고 한 것도 독일의 국민성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바탕이라고 유추적으로 본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구술을 통해 강조했다.⁶⁶⁾

박정희는 귀국 후 서독의 예를 자주 들면서 독일 국민성을 모방하는 관점의 훈시를 자주 하였다.

“관민이 다 같이 생산적인 사고방식과 근면 검약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해야 할 것이다.”⁶⁷⁾

이후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경제발전과 승공통일의 연계를, 즉, 경제발전이 승공통일의 길임을 더욱 자주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그대로 조국통일운동이다.”⁶⁸⁾ 라고 언급하였다. 서독 방문 중 박대통령은 이미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였음을 백박사는 전한다:

64) 동아출판사 편, 『봉정7만리, 박정희대통령방독기』, 1965, 13쪽.

65) 백영훈, 『아우토반에 뿌린 눈물』, 서울 (연암프레스) 1997, 42쪽.

66) 백영훈 구술면담.

67) 박정희, 「지방장관회의 유시」, 1965. 8. 31, 김보현,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서울 (갈무리) 2006에서 재인용.

68) 박정희, 「국군의 날 유시」, 1968. 10. 1, 김보현,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서울 (갈무리) 2006에서 재인용.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했다면 우리도 한강의 기적을 일궈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근면성으로 따져 봐도 우리 국민이 오히려 독일 국민보다 부지런하면 했지 결코 못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기간 산업과 리더쉽인데 도로와 제철소야 돈을 빌려다 세우면 될 테이고, 리더쉽이야 내가 더 노력하면 될 게 아닌가. . . .”⁶⁹⁾

백박사가 전하는 박대통령의 이 언급은 그 후 전개된 한국의 역사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 역사의 놀라운 역동성 그리고 독재체제의 어두움 모두를 예견하는 듯하다.

박정희의 서독 방문 후 서독의 고속도로, 자동차산업, 제철산업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조언 및 기술지원을 하였다. 서독은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서독의 교훈과 실질적인 지지와 지원은 한국의 산업화에 큰 촉매제가 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한독관계사 연구자 쾰러는 이러한 서독의 지원이 제1, 2차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⁷⁰⁾ 이 방문에서 박대통령은 답방으로 뉘브케 대통령을 초청하는 의사를 밝혔고 1967년 3월 뉘브케 대통령이 방한하였다. 그러나 이 방문은 이로부터 3개월 후인 6월에 일어난 동백림 사건으로 다음에서 설명하듯이 빛을 바랬다.

IV. 세계 냉전체제의 거시적 차원에서 본 서독·남한 관계의 의미

본 장에서 필자는 지금까지 설명한 서독·남한 관계가 세계 냉전체제의 거시적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정리·조망하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시작된 냉전체제에서 서방세계의 근원적인 정책은 경제우위를 통한 승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냉전시대 서방세계의 초강대국인 미

69) 백영훈, 『한강에 흐르는 라인강의 기적』, 75쪽.

70) Patrick Köllner, “Die deutsch-koreanischen Beziehungen von 1945 bis zur Gegenwart”, Patrick Köllner (hrsg.), *Korea 1998. Politik, Wirtschaft, Gesellschaft*, Institute für Asienkunde (Hamburg 1998), p.19-56, p.30.

국의 마셜 원조계획 실시 (1947년에 결정, 1948-52년 기간에 실시) 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마셜 원조계획은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해지면 그것이 공산주의가 팽창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판단에서 전후 서유럽의 경제재건을 위해 미국의 국무장관 마셜이 제안하여 실시한 원조정책이었다. 이러한 경제재건을 통해 서방세계 내에 다자간 자유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이러한 자유무역정책은 서방세계 전반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즉, 이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는데, 즉 봉쇄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또한 역으로 이렇게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을 때 서방세계 내의 다자간 자유무역정책이 안정되게 실시될 수 있다는 논리도 큰 의미를 가졌다. 이렇듯 마셜 원조정책은 경제발전과 승공의 양자관계를 동전의 양면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서 서방세계의 냉전정책의 근간이었다. 마셜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미국은 독일연방공화국 (서독)의 건국에 적극적이었으며 서독과 프랑스가 화해하여 서유럽통합을 이루어감으로써 경제발전과 승공의 양자관계를 유럽에서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창설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했다. 미국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그리고 유럽경제공동체 (EEC)의 창설을 또한 적극 지지하였다.

그런가 하면 동북아에서는 통일 한국의 장래가 어렵게 되자 대한민국 (남한)의 건국을 지지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이었던 일본의 재건을 지원하여 함께 지역협력체로 묶어서 경제발전과 승공이라는 동전의 양면관계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막대한 경제 원조를 실시하였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미국과 함께하는 동북아지역 방위공동체의 창설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은 동북아조약기구 (NEATO) 창설을 제안하였다. 동북아조약기구 창설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화해를 전제하고 있고 일본이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제국주의 세력과 식민지 희생국으로서의 관계를 가졌던 양국 사이에 쉽게 화해를 성사시킬 수는 없었다. 따라서 동북아조약기구 창설의 실현은 쉽지 않았다. 서독을 핵심 방과제로 하여 서유럽을 통합하고 이를 대서양 건너 미국과 묶고 남한을 방과제로 하여 동북아를 결합하고 이를 태평양 건너 미국과

연결하여 소련과 중국의 좌우에서 봉쇄가 이루어지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한일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 정책이 쉽게 실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서유럽과 동북아 서방지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특히 서독의 이 지역에 대한 역할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실현시킬 기대를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은 일본 그리고 서독과 서유럽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서독이 군대를 만들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세계의 냉전체제 속에서 동북아의 분단국에서 일어난 비극이 이웃나라 일본과 서유럽의 분단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이는 냉전시대에 서독과 서유럽 남한과 일본의 동북아시아가 소련과 중국을 사이에 두고 대청관계에 있어서 양자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1960년대에 이르러 중국이 공산진영에서 소련과 자웅을 겨루는 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1964년에는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하였다. 서방세계는 소련은 물론 중국의 팽창에 봉쇄정책을 긴밀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동북아조약기구(NEATO)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남한의 신속한 재건과 남한과 일본 사이의 화해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서독이 남한을 지원하도록 적극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남한의 5·16군사쿠데타를 인정하지 않고자 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확산과 인권의 보장이라는 도덕 정치를 표방하고 있었다. 또한 아시아에서 군사쿠데타 확산을 우려하고 있었다. 케네디가 1963년 11월 암살되고 존슨(Johnson)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베트남전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전쟁을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베트남 파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남한을 지원 하는 서독이 한일 화해와 동북아조약기구(NEATO) 창설을 위해 도우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⁷¹⁾ 즉, 서독 아테나워와 에르하

71) 이러한 필자의 해석은 앞에서 인용한 에르하르트와 주 서독 미국대사 맥기(McGhee)와의 대화에 기초한다. 1963년 11월 29일 주한 서독대사 뵐거(Karl Büniger)가 서독 연방수상실에 보낸 서신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 당선자와 에르하르트 수상이 워싱턴의 케네디 장례식에서 만나 환담했고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박

르트의 승공모델은 박정희가 한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하며 이는 미국이 냉전체제 속에서 추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정책과 반공의 봉쇄정책의 상호연계와 같은 맥락 구조를 띠고 있다. 이는 서독의 모델이 미국의 중재로 서독의 남한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서독과 남한 그리고 서유럽과 동북아가 연계되어 냉전체제의 서방결속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구조적 바탕으로서 세계적 냉전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냉전 체제 속에서 실시된 미국의 대외정책과 서독과 남한의 경제성장을 통한 승공정책은 각각의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시 말해 서독의 소위 ‘라인강의 기적’ 그리고 남한의 역동적인 산업화는 일면 위와 같은 냉전체제의 틀 속에서 구조적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이러한 체제는 동북아에서 한·미·일 상호 협력 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서독과 남한 사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의 정책 추구와 동시에 남한사회는 일제식민지 시대 청산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위와 같은 발전은 권위주의 리더십에 의거한 사회의 동력에 힘입었으며 권위주의 사회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반해 나치시대를 경험하고 과거청산이 최우선 과제였던 서독에서는 경제발전과 분단의 극복 과제 등이 독일 과거사 청산, 민족주의의 극복과 유럽통합 대의에 순응, 성숙한 민주 시민사회를 건설해 가는 역사적 과업과 연계되어 있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동력을 바로 이 성숙한 시민사회에서 찾았다. 이러한 사회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경제성장을 통한 승공정책은 서독과 남한 사이에 공유되었으나 사회적 차원의 승공정책 개념은 달랐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서독인들은 다음 장에서 설명할 동백림 사건을 계기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정희 정권이 뵙거대사에게 귀국길의 김포공항에서 전했다고 한다. Reise von Staatspräsident PARK Chung Hee nach Washington, B 136/6264. 이 서신 중 해당 내용을 독일어 원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Als Präsident Park heute die Reihe der Botschafter auf dem Flugplatz entlang ging, um kurz jedem die Hand zu geben, trat er unerwartet nahe an mich heran und sagte mit leiser Stimme: “Ich habe mit Ihrem Bundeskanzler gesprochen”. Sein Gesicht zeigte dabei deutlich Freude und Stolz. 이는 1963년 대통령선거 후에 이미 박정희가 미국의 초청을 받았고 그곳에서 에르하르트 수상을 만나 환담한 것으로 미국의 중재에 의한 남한과 서독의 관계를 방증해 주는 사료라 볼 수 있겠다.

V. 박정희시대 한독 관계에서 1967년 동백림사건과

그 의미

1967년 동백림사건은 그동안의 성공적인 한독관계를 급격히 냉각시킨 사건이 되었다. 당시 서독의 언론과 정부 보고서 및 시민들의 탄원서들에 따르면 서독인들은 동백림사건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서독에 거주하던 유학생, 광부, 간호사 중에 몇 사람들이 동독에 있는 북한 대사관과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는 한국의 반공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는 당시 한국의 중앙정보부에 의해 반공법 위반 행위를 넘어서는 간첩행위로 파악되었다. 중앙정보부는 서독 정부와 협의 없이 이들을 납치 강제 귀국시켜 가혹행위와 함께 조사하고 재판에 회부하였다. 이들 모두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된 서독인들이 엄청나게 반발하였다. 서독의 시각에 의하면 서독 정부와 협의 없이 당사자들을 납치하여(entführt) 강제 귀국시킨 행위는 주권침해 행위이며 가혹행위와 함께 조사하여 간첩혐의를 부과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 행위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이 사건은 서독의 정부와 사회에 자기 역사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깊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⁷²⁾

나치시대에 대한 과거청산의 역사적 과제로 고뇌하면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통합을 지향하는 많은 서독인들은 이 사건에서 역사적 퇴행성과 그 위험성을 보았다. 당시의 서독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반공의 연대의 필요성을 뒤로 하고 남한의 군부정권의 비민주성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사회의 경제발전 기획이 이러한 사회적 비민주성의 대가로 수렴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을 주목해 보기 시작하였다. 서독인

⁷²⁾ 이에 대해서는 코플렌츠(Koblentz)에 소재한 독일연방기록보존소에서 방대한 양의 기록들을 볼 수 있다. 교수 및 학생들의 단체, 연방의회, 각 사회단체들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그 해결이 원만치 않을 경우 남한(Südkorea)과 모든 관계를 끊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연방의회 147차 회의록(1968년 1월 18일), BA, B122/5484 참조 필요. 그런가 하면 뤼브케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에르하르트 수상과 수상부인 앞으로 각종의 탄원서들이 수없이 발송되었다. BA, B122/5484, 주서독 대한민국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서독 언론들이 이 사건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들은 이념이 정치 도구화되고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남한 사회의 현실을 주목하면서 협력의 파트너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서독인들은 서독과 남한은 반공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서독과 남한 사이에 내재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달리 말해 서독인들은 분단 현실이 그대로 양국사이의 공통점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리하여 서독의 정치가들은 물론 대학 교수 학생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 까지 한국 (남한) 과의 모든 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독의 각 정당들의 비판이 거셌으며 결국 연방의회에서 이 사건이 주 의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⁷³⁾ 이는 결국 서독과 남한 관계의 중대한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서독과 남한의 경제 관계 및 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⁷⁴⁾ 두 국가 사이에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쳐 1969년 관련 당사자들이 석방되고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이는 남한의 민주화 진행에 많은 관심을 갖는 서독의 독일인 개인 그리고 사회기관들을 양산해 내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동백림 사건은 서독이 공동의 반공과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와 협력이라는 공적인 관점에서 민주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이라는 민간의 관점으로 그 초점을 일정 부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서독의 개신교 단체들과 개인들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지원을 기획하기 시작하였다.

VI. 맺음말

지금까지의 서술을 통해 필자는 냉전시대 반공 및 승공을 위한 연대의 기치가 서독과 남한 사이에 원조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일면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흐를 수 있는’ 토대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73) 연방의회 147차 회의록 (1968년 1월 18일), BA, B122/5484.

74) 당시 동백림 사건이 두 국가 사이의 경제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과 더불어, 서독과 경제관계의 축소에는 또한 1965년부터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그리고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미국과의 관계 활성화 등이 실질적인 주요 원인이 되었다.

있음을 예시하였다. 1960년대 한국과 독일 관계사는 박정희의 산업화 정책과 ‘선 건설 후 통일’ 정책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의 사실로 보인다. 이러한 역사는 세계적인 냉전체제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또한 알 수 있다. 세계적 냉전체제의 구조 속에서 각 국가들 그리고 각 정치 세력의 이익추구와 이념 및 정치적 비전의 양상들이 남한의 산업화와 정치 및 정책의 정향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이러한 한국에서의 상황전개는 국제적 냉전체제에 또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박정희의 산업화 구상과 승공정책 그리고 ‘국민성 고취’ 정책 등이 일면 서독을 모델로 하여 그리고 서독의 지원에 힘입어 구체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던 측면은 한국현대사 이해를 위해 매우 중대한 국면으로 보인다. 동북아 지역방위공동체 구상도 서독이 처한 현실과 경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추진력은 실천의 결실들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박정희 개인의 치밀하고 끈질긴 신념의 비전과 의지와 노력이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구상과 실천 그리고 성공적 결실은 범상한 일이 아닌 비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고속도로, 대기업, 잘사는 서독의 농촌 사회를 유심히 관찰하고 또 연구하고 울창한 숲을 부러워하며 그와 같은 모습을 고국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의지와 실천에 옮기는 실행력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를 위해 하나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⁷⁵⁾

그런데 이러한 추구와 결실들은 민주적으로 탄생한 정부를 뒤엎고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맞물려 있고 반공이념의 정치도구화를 통한 사회통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결집되고 있어서 짙은 어둠의 그림자를 또한 드리우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일제 강점기 과거사 청산에 대한 민족사적 엄정성이 간과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역사가 대한민국(남한)의 역사에 어떤 진정한 모델 내지는 참고의 의미를 던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테나위와 에

75) 대한민국의 역동적 산업화, 소위 ‘한강의 기적’에 무엇이 그리고 어떤 요소가 근본 원동력으로 또는 어느 정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나와 있다. 예를 들어, 이완범, 『박정희와 한강의 기적. 1차 5개년 계획과 무역입국』,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6).

르하르트 시기가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독일 현대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진중히 새겨볼 필요가 있다. 서독은 사회복지와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사회개혁운동, 특히 1968년 젊은 세대의 사회변혁 운동 시기를 거치면서 아테나워와 에르하르트의 경직된 반공노선에서 탈피하여 공산권과의 보다 유연한 관계정립을 추구하고 서독 내부의 보다 본원적인 민주화의 길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아테나워와 에르하르트 시기에 이루어진 놀라운 경제성장과 서방세계로의 탄탄한 결속을 바탕으로 하여 내적 민주화의 심화와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에 대해 ‘접촉을 통한 변화’ 전략과 정책을 구사하게 되었다. 소위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이 실시되게 되었다. 1964년 12월 박정희 정권의 서베를린 방문 시기에 브란트가 당시 시장으로서 설명하던 내용을 수상이 되어 동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실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성장을 통한 승공’ 또는 ‘선 건설 후 통일’의 정책들이 동·서독 간의 화해와 통일을 향해 ‘접촉을 통한 변화’ 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독일의 통일은 아테나워와 에르하르트 시기의 정책들과 브란트 시기의 정책들이 변증법적으로 통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박정희 정권에 의한 1968-1969년의 3선 개헌 파동, 1972년의 유신헌법의 도입을 통한 독재체제의 영구집권이 지속적으로 획책되면서 ‘경제성장을 통한 승공정책’은 사회통제를 위한 기제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고착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 속에서 ‘경제성장을 통한 승공정책’의 목표는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민주주의 억압 그리고 사회가치의 왜곡을 정당화시켜 갔던 것이다. 산업화와 근대화가 역동적으로 전개되던 시대의 참담한 어둠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모델로 설정했던 서독의 역사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박정희 시대의 역동적 산업화는 보다 본원적인 내부적 민주화 그리고 평화에 기초한 통일의 길을 향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역동적인 한국 산업화의 성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행된 반민주적 억압 속에서 피어난 민주화 이 양자는 변증법적 통합의 작용을 통해 민족사를 위해 합목적적인 결과를 성취해 낼 수 있어야 하겠다. 이는 그 어둠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전제로 한다.

독일에서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북한 정권이 무력으로 한반도를 공산

화시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민족적 비극을 야기했다. 그런가 하면 북한 사회는 현재에도 과거 동독 사회에서와는 다른 차원의 폐쇄성과 예측불가능성의 위험성을 보인다. 3대 세습의 독재체제가 이어지고 파산 상태의 경제 속에서 핵무기를 개발해 오고 있다. 이는 우리가 서독이 직면했던 것과는 다른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편으로 안보와 국방 등 모든 부문에서 철저한 대비를 갖추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을 내부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지혜를 모으면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 가야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것이 ‘라인강의 기적’을 보면서 일구어 내기 시작한 ‘한강의 기적’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듯 서독의 성공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조국에 적용시켜 산업화와 근대화의 결실을 거두고자 한 박대통령의 치밀하고 끈질긴 비전과 의지와 노력은 강한 인상을 준다. 그 시대의 참담한 어둠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그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통해 그 시대에 경주되었던 노력과 결실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지속적인 민주사회 발전과 진정한 번영 그리고 교류·협력·화해에 기초한 통일의 길을 위해 역사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고를 맺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hoannoh@hanmail.net)

주제어: 남한, 서독, 박정희, 에르하르트, 산업화, 반공

논문투고: 2010.12.21. 심사완료: 2011.1.16. 게재확정: 2011.2.15.

<Abstract>

The Meaning and Role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Beginning of the Park Chung-hee Era under the International
Cold War System 1961-1967

Noh, Meung-Hoan

Germany and Korea were divided into East and West and North and South respectively with the developments of the Cold War after the World War II. The Vicissitudes of the Cold War after World War II led to the division of Germany into East and West and, after the Korean War,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In just a few years of post-war reconstruction West Germany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FRG) achieved radical economic prosperity that soon came to be dubbed the “economic miracle on the Rhine” (Wirtschaftswunder).

This rapid economic development was especially impressive to South Korea, which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at the turn of the 1960s.

In the Republic of Korea, General, Park Chung-hee came to the power through the military coup of May 16, 1961(called the 5.16 coup d'état).

The then South Korean government of Chang Myun was weak, but as it manifest a democratic orientatio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presidentship of Kennedy,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South Korea, did not endorse this military take-over of power.

Understandably, given the erstwhile colonial past, there were no official relations with Japan at that time.

Park Chung-hee courted the FRG in order to win development assistance; thus shortly after his inauguration as president in 1963 Park

decided to visit the FRG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whilst concomitantly looking to the FRG as offering a model for South Korea's economic take-off.

Key Words: South Korea, West Germany, Park Chung-hee, Ludwig Erhard, Industrialization, Anti-communism